



현재 국내에서는 IMT-2000 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업자선정 이슈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핵심은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사업자 후보들이 기술표준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자 후보는 물론 장비 제조업체, 정부, 관련 연구기관 등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논쟁거리를 제공한 IMT-2000 표준화가 세계적으로 여러 무선전송 기술방식을 모두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로밍을 지향할 수 있도록 ITU의 IMT-2000 무선규격 권고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여러 지역/국가 표준화기구들이 그 동안 3GPPs 표준화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많은 기술규격들이 동 ITU 권고에 참조 인용됨으로서 ITU와 지역/국가표준화기구들이 표준화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IMT-2000 무선규격 권고가 탄생된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표준화 협력 및 조화 (Harmonization)의 구체적 방안들이 1999년 8월말 경에 미국 윌리엄스버그에서 개최된 GSC-5/RAST-8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그 다음달인 9월 중순경 ITU본부에서 개최된 ITU-R과 3GPPs 참여 표준화 기관과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IMT-2000 표준화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GSC(세계표준화협력회의)는 원래 1990년 2월에 미국의 T1위원회, 유럽의 ETSI, 일본의 TTC 등 3개 표준화기구가 ITU를 중심으로한 국제표준화 활동의 사전조율과 상호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ITSC(Interregional Telecommunication Standards Conference)라는 협의체를 발족하여 ITU와의 기본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함에 따라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 후 1992년 11월 ITSC 3차 동경회의에서는 한국의 TTA, 호주의 ATSC(현 ACIF), 캐나다의 TSACC 등이 추가로 참여한 가운데 보다 발전된 형태인 세계표준화협력회의(GSC)로 재결성하기로 하여 그 첫회의인 GSC-1은 호주 멜버

른에서 1994년 3월에 개최되었다.

한편, RAST(세계전파표준화회의)는 1994년 10월에 ETSI 기술총회 의장의 주창에 따라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9차 회의가 최근에 개최되었다. 활동목적은 세계 유수의 전파통신 표준화기구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여 세계전파통신표준화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논의 및 주요 분야 표준화활동의 사전조율 기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GSC와 연계되어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각 PSO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일본의 TTC와 ARIB의 공동초청으로 일본의 삿포로의 호텔에서 GSC-6회의와 RAST-9 회의가 연계되어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세계 8개 주요 표준화기구에서 약 100여명의 표준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4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12편의 기고서를 발표하는 등 횡수가 거듭될수록 표준화활동의 수준과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 표준화 전문가 발굴 및 양성 노력에도 그 결실이 맺어져 가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커다란 흐름은 역시 IMT-2000 등에 있어서 표준화 협력방안으로서 글로벌 로밍을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 측면의 표준화에 있어서 ITU-T와 3GPPs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마 WTSA-2000 회의 개최 후 연말 안에 ITU-T에서 3GPPs 참여 표준화 기구들을 초청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ITU-R과 3GPPs 참여 표준화기구간의 협력모델이 많이 참조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WTSA-2000 관련하여 "IMT-2000 & Beyond" SG 신설문제 등 ITU-T SG 구조개편, ITU 개혁 등 국제/지역/국가표준화 이슈들에 관하여 각 표준화기구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ITU-T SG 의장단 진출 관련해서도 관련국가들과 정보교환 및 사전협의 등을 회의

장 밖에서 진행하였다.

또 다른 흐름은 GSC/RAST 회의가 회를 거듭할수록 생산 지향적인 회의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 회의들은 주로 정보교환, 기관 간 협력 및 우호증진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GSC 및 RAST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사항들을 각 표준화 기구들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좀더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각 결의 분야에 대해 표준화 기구별로 라포처를 지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 표준화 기구에 비해 기술 및 표준화활동 수준이 낮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TTA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GSC에서는 표준화 과정에서 사용자(User)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 실무반(User Working Group) 활동이 점차 증진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활동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전문가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GSC-5, RAST-9 회의에서는 각기 핵심 표준화분야(HIS/HIA)들을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정비 및 명확화 하였고 새로운 정보공유대상(IIS)을 3개 정하여 각 표준화기구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RAST-9에서는 향후 전파통신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WRC-2003/2006 의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GSC/RAST 표준화 협력이 국가간 국제기구인 ITU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표준개발의 업무분담을 추진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표준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적기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화 협력 메커니즘으로 차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체계로의 전환국면은 향후 국제표준화기구, 지역/국가표준화기구 및 사실 표준화기구들의 경쟁, 조화 및 협력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된 협력체계로 진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심에 있어서 GSC 및 RAS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